인연(因緣)으로 행복해 질 수 있는 새해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대승 목탁



나를 사랑하고 나의 행복을 원한다면 보이지 않는 업이라도 이 순간을 함부로 하지 말고 기꺼이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에 더 적극적일 때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구촌 구석구석 고통받고 그늘진 곳에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새해에는 인간방생 중생구제의 새 장을 여는 뜻깊은 좋은 날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을 열어 놓고 언제나 만나고픈 그런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는 사람이 많고 순수한 마음이 되어서 더 성숙된 자비로운 수행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나와 불성 찾아 코로나 극복을..."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무척 힘든 한 해를 보냈을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면 여명의 아침이 밝아 오듯이, 고통과 어려움도 찬란한 아침 햇빛 속에 자취를 감추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안의 마음을 굴리고 굴려서, 참나와 불성을 찾으신다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우주 시방세계에 넉넉한 마음들이 전해져 병마를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새해 청정심으로 코로나19 없는 불국정토를 만들어 갑시다.

지금이야말로 신심을 부동으로

眞如苑 원주 眞澄寺 수좌 대승정 이토신소



신축(辛丑)년 초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건승과 더불어 불교계가 한층 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신뇨엔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받는 모든 분에게 다가가 이타행을 실천하며 보다 빠른 사태의 개선과 수습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직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신뇨엔 개조께서 83년 전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록해놓으신 중생제도 기서의 말씀 '恒明의 誦' 입니다. "일심의 '진심' 을 담아 기도하라. 무슨 일이든 순하게 받아들여 지혜의 눈을 떠라. 혜안을 열어 앞날을 밝게 보라. 신심을 부동으로 하라. 강하게 하라." 지구 재난일수록 利生과 기도의 힘, 그리고 강한 부동의 마음으로 지혜의 눈을 떠서 자비의 실천을 통해 희망의 빛을 끊임없이 밝히며 앞날을 밝게 열어갑시다.

중연소생(衆緣所生)의 가르침을 가슴깊이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부처님은 우주(宇宙)의 당체(當體)이며 만상(萬像)은 부처님의 분상(分像)입니다. 부처님의 경지는 넓어서 끝이 없고 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신축년 새해도 희망차게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심각한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한반도 및 세계평화와 경제성장을 통한 안정적인 삶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올해의 꿈일 것입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선 중연소생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겨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신축년을 맞아 모든 인류가 행복과 평화로운 날들을 열어가길 기원합니다.

아름다운 평화의 땅 극락낙원

대한불교 삼보종
총무원장 법장



신축년辛丑年 새해 아침!
가정마다 천지의 기운 가득 쌓이고! 온 세상에 대일광(大日光)이 가득히 빛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온 세상을 욕심과 오염으로 더럽히니 자연의 그 재앙을 현세의 사람들이 그 고통을 받게 되어 전염병 바이러스로 죽는 고통의 병난을 부릅니다. 종교인은 수행의 도를 갈고닦아 바른 법문 진리 말씀 전파하고 세속인은 계율 따라 정직하고 깨끗하게 우주 자연을 보호하면 아름다운 평화의 땅 극락 낙원의 참세상이 열립니다. 〈나쁜 업장 참회하는 진언〉 옴 살바 못자 사다야 사바하.〈질병퇴치진언〉 옴 따레 뚜따레 뚜레 쏘하(108염송) 제불보살 관세음보살 찬탄합니다.

이겨내어 희망찬 한 해를

(사)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신축년 새해, 새 아침 반갑습니다. 현재 코로나 3차 대유행 추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으로 다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지쳐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K방역으로 상황을 진정시켜 코로나 최강국으로 손꼽혔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 국민이 同苦同樂(동고동락)으로 힘을 모아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방역에 힘써 나간다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반드시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등불을 심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행복한 세상을 열어갑시다.

대자대비의 화엄세계

(사)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하나마다 귀를 기울이면 날마다 좋은 날이요, 하나하나 실천하면 곳곳이 대자대비의 화엄세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류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도 사실은 인간의 한없는 욕심과 무분별한 삶이 만들어 낸 질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치적 현실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했던 것 이 아니라,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군주와 백성을 인격적으로 교화하는데 많은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어려웠던 묵은 해는 다 잊으시고 새로이 다가오는 한 해는 모든 중생이 행복이 넘치는 활기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영원한 법성이 진정한 나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
총무원장 호산 성보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나란 끝없는 번뇌와 시비다툼으로 오염된 혼탁한 내가 아니고, 태양처럼 밝고 영원한 법성이 진정한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 집착으로 인한 인연에서 시작됩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법성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은 자기 자신부터 바로 서고 남을 제도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불자님들의 가정에 항상 밝혀지기를 서원 드립니다.

내면을 성찰해 나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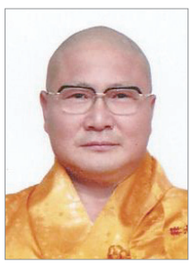
대한불교 무량종
종정 혜안



말세(末世)의 살생업(殺生業) 서방(西方)이 때리니 살풍(殺風)으로 지는 낙엽이 천지를 덮는 도다. 숙살의 금풍(金風)이 춘화(春化)를 그리워하며 지리산(智異山) 구재봉이 무량광(無量光)을 발(發)하건만 뉘라서 이 소식을 알겠는가. 계룡의 연산(連山)이 개벽을 알린지 百年이 지났고 문수산의 칠봉(七峯)이 죽림(竹林)에 등불 켠지 77代 밤마다 북두칠성이 미륵에 방광(防光)을 하건만 탐.진.치(貪嗔痴) 삼독(三毒)에 눈멀어 보고 듣는 이가 없구나. 시비나 성패도 지나고 보면 허무(虛無)한 것. 삭풍에 귀뚜리 목이메여 울지도 못하니 큰집 속에 비대면 노(老)처녀 恨萬端(한만단) 되리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깨닫고 보면 법 없음도 없느니라

(사)대한불교 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청운



本來付有法(본래유법)이니
付了言無法(부료언무법)이요
各各須自悟(각각수자오)면
悟了無無法(오료무무법)이라

본래 있는 법 전하니 전한 뒤에는
법 없다 하더라도
각각 깨닫고 보면 법 없음도 없느니라

나무아미타불

대립과 갈등을 상생과 화해로 ...

현대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동화



세월이 일깨워주는 성쇠(盛衰)와 고락(苦樂)의 섭리(攝理)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는 시위와 정권 교체로 숨 가쁜 변화의 물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의 온갖 자연재해로 수많은 인명이 신음 속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혜의 시대란 모든 탐욕과 무지를 벗고 대립과 갈등을 상생과 화해로 전환시킬 때 완성됩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서원하며, 나와 가족을 넘어 지구촌 모든 생명의 안전과 평화의 해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찰나의 불심을 모아 성불의 길로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일봉



신축년 새해가 밝으니 곳곳에 희망의 물결이 가득합니다. 종교의 근본적 목적은 인간의 내면적 인격을 바꾸어 보다 더 나은 세상의 평화 행복, 찰나의 불심을 모아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의 광명은 항상 시방세계를 비추어 주듯 사회적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자비로서 서로를 배려하고 정심(正心) 공도(公道)를 세워 불국정토를 이루며 화합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새해를 열어가야 합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내면에 있는 지혜와 덕성을 갖춘 자기 모습에 자각하여 번뇌에서 해탈 일체중생이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족하는 마음으로 용맹정진

한국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장 혜봉



우리 사바세계의 삶은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좋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니, 마음 하나를 제대로 잘 다스리면 여기에 모든 자유가 있고 모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삶에 마음을 활짝 열어 밝은 미래를 향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를 생각하고 자신이 만족하는 마음으로 용맹 정진하여 본성 불에 마음 밝혀 끝없이 지혜로운 보살행을 실천합시다.
부처님의 가피가 두루 하시고 새해 신축년 밝은 안목으로 발돋움하는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서원합니다.

화합하여 복덕 쌓아 희망찬 한해를

(사)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정 법호 서호



새해에는 모든 국민이 화합하여 나라에 안정에 힘쓰고 안정을 바탕으로 번영을 꾀하여야 하고 민족의 번영만이 평화통일의 길임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합니다. 역사와 민족을 우롱하고 부인하는 어두운 땅 북녘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고루 내리시어 그들에게 자유와 희망과 생의 용기를 주시옵기를 기원합니다. 아집 편견 과욕에 의한 갈등 자멸의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고. 자비 화합 평등 자주의 부처님 정신이 청정무구한 인간성 회복을 위한 처방이며 자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류의 참된 빛이요 구원의 빛입니다. 새해에는 허망된 욕심과 아집을 버리시고 서로 화합하여 복덕을 쌓아 복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나눔으로 희망의 길을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봉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요. 의료진, 봉사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행을 베푸는 모든 분들의 정신에 부처님의 명호로 무한한 찬탄의 박수를 보냅니다. 어려움을 이겨 낼수록 자비심은 증비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습니다. 부처님처럼 행동하면 우리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자비 나눔으로 어두운 세상에 불을 밝혀 줄 희망의 길을 열어갑시다.

꺼지지 않는 영원의 등불이어라

(사)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불멸등혜장명등(不滅燈兮長明燈)
인인개개인인등(人人皆皆人人燈)
장명등혜불명등(長明燈兮不滅燈)
청징사해만인낙(淸澄四海萬人樂)
세세년년세세등(世世年年世世燈)
실원성취다복년(悉願成就多福年))

언제까지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여. 사람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등불일세. 기리기리 밝아 꺼지지 않는 등불로 사해 청정하고 만인이 즐거우며 세세년년 밝게 비치니 영원의 등불이어라. 원하는 바 모두 이루어 행복한 한 해가 되소서.

코로나19를 이겨나가길

(사)대한불교 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파



저물어가는 경자년을 보내면서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혼돈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쉼 없이 변하는 번뇌하는 마음이 참 마음이 아닌 것을 알고, 중생들이 지닌 영원한 본성 즉 불성을 찾아야 합니다. 신년 새해는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탐·진·치 삼독심으로 욕심을 내고, 성내고, 어리석었던 마음은 다 녹여버리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우리의 인생 참된 도리를 깨닫기를 삼보전에 두 손 모아 발원하옵니다.

끊이없이 정진하라

대한불교 삼론종
종정 혜승



時時刻刻 速經日夜
日日移移 速經月晦
月月移移 忽來年至
年年移移 暫到死門
-원효스님 발심수행장중-

佛子들이여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한 부처임을 잘 살펴 알고, 모든 부처님은 시공을 다 초월하여 이미 다 이른 부처임을 불자라면 잘 알아서 끊임없이 정진해야 옳지 않겠는가. 깜짝하면 죽음이 문 앞에 시한부 인생이 아니던가!

동체대비를 일으키자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던 우환폐렴(코로나19)으로 혼란한 시국이 연일 되어 많은 불자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힘겹고 숨찬 波高가 밀려와도 우리는 언제나 그러했듯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딛고 일어 날 수 있습니다. 번뇌 속에 범부는 부처를 만나고, 고난 속에 비로소 마음의 안식을 찾게 됩니다.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서로를 아끼고 감싸 안으며 온정을 나누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감 가득한 한 해 되시길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석성



어려움이 많았던 경자년을 보내고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였으나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무거운 마음이 가시지 않은 채 한 해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내시라고 격려의 말씀 올립니다. 무거운 짐을 싣고도 묵묵히 나아가는 달구지를 이끄는 소의 의지력을 생각하시어 우리 다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 극복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